

耑을 根源聲符로 한 형성자 考

韓 延 錫*

<目 次>

I. 序論	III. 耑을 根源聲符로 한 형성자의
II. 耑을 根源聲符로 한 形聲字	音韻考證
	IV. 結語

<국문 초록>

耑의 본의는 ‘시초’이다. 갑골문은 耑로 썼다. 식물이 싹이 돋아난 모습을 그린 것인데 上部 ‘ㄱ’은 새싹의 줄기[ㄱ]와 물[]을, 下部 ‘ㄴ’은 땅[]과 뿌리[]를 그려, ‘시초’란 뜻을 나타내었다.

갑골문에서 해서까지의 字形演變은 耑[갑골문] - 耑[금문] - 耑[소전] - 耑[전국문자] - 耑[古隸] - 耑[今隸] - 耑[楷書]’으로, 금문 ‘耑’는 갑골문 ‘耑’에 그려진 물[]이 생략되었다. 이는 해서 ‘耑’까지 그대로 이어져 왔다. ‘耑’는 갑골문에서 줄기를 그린 ‘ㄱ’의 하부[]가 생략되고, ‘ㄱ’의 상부[]만 ‘ㄱ’로, 땅과 줄기를 그린 ‘ㄴ’은 ‘ㄴ’로 演變시킨 것이다.

소전 ‘耑’는 금문 ‘耑’와 기본적으로 같다. 금문의 하부 ‘ㄴ’을 ‘ㄴ’로 썼다. 전국문자 ‘耑’는 소전 ‘耑’를 더욱 간화시켜 하부 ‘ㄴ’을 ‘ㄴ’로 썼다. 古隸 ‘耑’는 소전 ‘耑’와 기본적으로 같다. 상부는 소전 ‘耑’을 ‘耑’로 뒤틀어 썼고, 하부 ‘ㄴ’은 소전 ‘ㄴ’의 ‘ㄴ’을 ‘ㄴ’로, ‘ㄴ’은 ‘ㄴ’로 演變되었다.

今隸 ㉑, ㉒, ㉓, ㉔는 古隸 ‘耑’를 계승한 것인데, 상부 ‘ㄴ’을, ‘耑’는 방향을

* 公州大學校 漢文教育學科 副教授 / hanyoun4860@hanmail.net

바뀌 ‘𠄎’로 세워 썼고, 𠄎는 ‘𠄎’로 세워 썼으며 ‘𠄎, 𠄎’는 ‘𠄎, 𠄎’로 약간 세워 썼다. 하부 ‘𠄎’는 땅은 그대로 쓰고[-] 뿌리의 모습을 ‘𠄎, 𠄎, 𠄎, 𠄎’로 平直化시켜 썼다.

𠄎이 段의 構件으로 쓰일 때는 ‘𠄎’으로 변형되었다. ‘𠄎’의 금문에서 해서까지의 자형연변 ‘𠄎[𠄎] - 𠄎 - 𠄎 - 𠄎, 𠄎 - 𠄎’는 左右結構의 한자에서 정형미를 추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들은 𠄎의 갑골에서 해서까지의, 하부의 뿌리를 나타내는 부분을 생략하고, 상부만을 ‘𠄎’로 세워 쓴 것이다.

𠄎을 성부로 한 형성자는 端(단), 段(단), 𠄎(진), 𠄎(진), 瑞(서), 𠄎(취), 𠄎(타) 등이 있다. 이들 가운데 瑞는 𠄎과 독음차이가 커 성부 認知가 어렵다. 하지만 瑞와 𠄎은 對轉歌韻과 元韻, 準旁紐[端, 禪紐]의 近音으로, 𠄎이 瑞의 聲符임이 증명된다. 아울러 𠄎과 段을 성부로 한 형성자들의 上古音은, 韻部는 疊韻 혹은 對轉이며 聲紐는 雙聲, 準雙聲, 旁紐, 準旁紐, 隣紐의 近音이다.

【주제어】 根源聲符, 𠄎, 段, 瑞, 音韻考證

I. 序論

한자의 이해는 형성자의 장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형성자의 聲符[소리 부분] 인지가 곤란한 경우가 있다.

첫째, 譌變이다. 예컨대 秋의 籀文은 𠄎이다. 오른쪽 ‘𠄎’가 聲符이고 왼쪽 ‘𠄎’가 義符인데, 소전단계에서 오른쪽 聲符를 완전히 제거하고, 왼쪽의 ‘𠄎’를 左右結構의 ‘秋(𠄎)’로 書寫하여 聲符를 잃었다.

둘째, 聲符의 필획이 변형되거나 편방이 합병되어 表音 작용을 잃었다. 예컨대 夜(夜)는 夕이 의미를, 亦이 소리를 나타내는데 亦의 필획이 변형되고, 亦과 夕이 합병되었으며, 春은 屯이 성부인데 上部 艸와 합병하여 ‘𠄎’으로 써 성부 인식이 곤란하다.

셋째, 聲符의 자형이 演變되거나 생략되었다. 예컨대 韓은 𠄎(간)이 성부인데 𠄎의 ‘人’을, 段은 𠄎이 성부인데 ‘𠄎’으로 과감하게 생략하고 동

시에 자형연변이 일어났다.

넷째, 隸變에 의해 異字同形, 혹은 同字異形으로 演變되었다. 예컨대 束(속), 束(랄), 束(자)는 形同 혹은 形近하다. ‘速(속), 漵(속)’ ‘棘(랄), 賴(뢰)’에서 前者는 束(속)이, 後者는 束(랄)이 성부이다. ‘刺(자), 責(책)’은 ‘束’가 성부인데, 責에서는 ‘耑’로 演變되어 성부인식이 어렵다.

다섯째, 正形미를 위해 자형을 바꿨다. 예컨대 急은 及, 寺는 之, 達은 大가 (根源)성부인데, 자형미를 위해 각각 ‘ㄷ,’ ‘土,’ ‘土’로 자형을 바꿨다.

여섯째, 結構의 변화로 온전한 성부인데도 인지가 곤란하다. 예컨대 牽은 玄이, 穎은 頃이, 當은 尙이 성부인데, 牽은 ‘ㄱ’이 성부를 가로질러 썼고, 頃은 匕를 좌상에 썼으며, 當은 尙의 양쪽 豎劃을 짧게 썼기 때문에 성부인지가 어렵다.

일곱째, 음운변화가 커 성부인지가 어렵다. 예컨대 耑이 성부인 端(단), 黠(천), 顛(전), 瑞(서), 捰(취), 捰(타) 가운데, ‘瑞(서)’는 ‘耑’과 독음 차이가 커 성부인지가 어렵다.

여덟째, 사용과정 혹은 사전제작에서 오류를 범한 경우이다. 예컨대 𪛗은 중국이나 한국 사전에 자음을 ‘궁’과 ‘선’ 두 개로 소개하고 있다. 𪛗은 본래 ‘베풀다 선’인데, ‘쫘[뻘다 궁]’과 形近하기 때문에 혼용한다. 1900년대 이전 사전에는 두 글자를 구분하였다. 市(시), 市(불), 市(지)를 성부로 한 형성자 역시 독음에 혼란을 겪는다. 柿를 ‘감 시’, ‘대팻밥 폐’로도 읽는데, ‘감 시’는 ‘柿’로 써야한다.

마지막은 익숙한 글자이지만 성부를 간과한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讀은 ‘賣(육)’이 성부일 것으로 추정은 한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 모른다. 讀은 根源聲符가 ‘六’이고, 이로부터 ‘六(륙) - 尃(륙) - 耑[물 륙] - 陸(목) - 賣(육) - 讀(續, 觀)’의 형성과정을 거쳤다.

難識 형성자(성부)는 반드시 한자학, 음운학, 훈고학적 소명을 거쳐야 비로소 형성자로서 인식할 수 있다. 본고는 耑을 성부로 한 형성자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耑을 성부로 한 형성자는 자형이 耑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와 ‘𠂔’으로 省變 된 것이 있다. 또, 자음도 端(단), 段(단), 斷(단), 端(천), 端(전), 端(전), 端(서), 端(취), 端(타) 등으로 분화되었다. 이들을 音韻學, 漢字學[字形學], 訓詁學을 종합적으로 운용하여, 형성자의 難識 성부를 규명한다. 특히 근원성부 耑과 이의 변형인 ‘𠂔’의 자형연변을 漢字學的으로 소명한다.

II. 耑을 根源聲符로 한 形聲字

1. 耑의 字源과 字形演變

1) 耑의 字源

耑의 본의는 ‘시초’이다. 許慎은 『說文』, 「耑部」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耑(耑)은 식물이 처음 돋아 날 때 첫머리¹⁾ 부분을 나타낸다. 위는 솟아나는 모양을 그린 것이고 아래는 그 뿌리를 그린 것이다. 반절은 ‘多官切[단]’이다²⁾

허신은 ‘耑(耑)’의 상부는 식물이 처음 돋아날 때의 모습을, 아래는 식물의 뿌리를 그린 것으로 본의는 ‘시초’라고 하였다. 허신의 설명은 정확하다. 단, 허신은 소전 耑의 상부 ‘𠂔’를 ‘止’로 釋讀하였으나 이는 오류이다. (아래 라진옥의 설명 참조.)

-
- 1) 단옥재의 『說文解字注』는 “題는 이마를 가리킨다. 인체에서 이마가 가장 위에 있다. 식물은 싹이 돋아 처음 드러내 보이는 것이 곧 이마이다.[題者額也. 人體額爲最上. 物之初見卽其額也.]”라고 하였다. (段玉裁, 『說文解字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1. p.336.)
 - 2) 許慎, 『說文解字』(北京: 中華書局, 1992.), p.149, “耑, 物初生之題也. 上象生形, 下象其根也. 多官切.” (이하 자형 채록 부분을 제외하고 許慎의 『說文解字』는 출처를 생략한다.)

段玉裁는 『說文解字注』에서 “耑의 중간에 있는 ‘一’은 땅을 나타내고, 맨 위 ‘山’ 모양은 식물이 처음 돌아날 때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一, 地也. 山象初生]”³⁾라고 보충 설명을 하였다. 위 허신과 단옥재의 字形, 字義 설명은 정확하다. 갑골문에서 耑은 ㉑, ㉒로 썼다.⁴⁾ 이에 대해 羅振玉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說文解字에서 ‘耑은 식물이 처음 돌아날 때 첫머리 부분이다. 위[ㄱ]는 돌아나고 있는 싹을 그린 것이고 아래[ㄷ]는 뿌리를 그린 것이다.’라고 하였다. 卜辭에서 ‘耑’자는 소전에 비해 ‘一’이 덧붙여졌는데 이는 물을 표시한다. 물은 식물을 기르는 것이다. 부근 중 ‘ㄱ’은 식물이 처음 돌아나 점점 가지가 갈라져 나오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자형이 止자와 유사하지만 조금 다름이 있다. 허신은 설문해자의 ‘止’자에 주하길 ‘풀과 나무가 싹이 돌아 나와 가지[터]가 생긴 모습을 그린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형태의 유사로 말미암아 생긴 오해이다.⁵⁾

라진옥은 허신의 본의 설명은 정확하나 자형 해석에 있어 ‘ㄱ’을 ‘止’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한다.

갑골문 ㉑, ㉒는 대동소이하다. 이들의 상부 ㄱ(㉑)과 ㄱ(㉒)는 동일 사물을 방향만 다르게 그린 것이다. 즉, ㄱ과 ㄱ의 중앙 ㄱ과 ㄱ은 식물이 싹이 나서 줄기가 갈라져 나온 모습을 방향만 다르게 그렸고, 식물이 자라면서 필요한 물은 ‘一’로 동일하다. ㉑, ㉒의 하부 ㄷ(㉑)과 ㄷ(㉒) 역시 대동소이하다. ㄷ(㉑)는 상부에 땅[一]을 그린 모습이 명확하게 드러난 반면 ㄷ(㉒)는 땅을 그린 모습이 ‘一’로 약간 譌變되었다. 단, 뿌리를 그린 ㄷ(㉑)와 ‘ㄷ’는 같다.

止와 자형이 유사한, 상부의 ㄱ(㉑)과 ㄱ(㉒)는 식물이 싹이 나서 줄기가

3) 段玉裁, 앞의 책, p.336.

4) 于省吾, 『甲骨文字詁林』(全4冊), 北京: 中華書局, 1996, p.840.

5) 于省吾, 위의 책, p.840, “說文解字 ‘耑, 物初生之題也. 上象生形, 下象根也.’ 卜辭耑字增‘一’表水形. 水可養植物者也. 從ㄱ, 象植物初苗漸生歧葉之狀, 形似止字而稍異. 許書止字注云 ‘象艸, 木出有址’乃因形似致譌矣.(殷釋中三十五葉下)”

갈라진 모습이고, 옆의 세 개의 점(·)은 식물이 자라면서 필요한 물[水]을, 아래 ㄹ(㉔)의 ‘一’은 ‘一’이 ‘冫’로 譌變된 땅을, ㄹ과 ㄱ은 뿌리를 그려 ‘시초’란 뜻을 나타내었다. 현재 ‘시초, 단초, 발단’이란 뜻은 거의 ‘端’으로 쓰고, ‘耑’은 ‘오로지’란 뜻으로 많이 쓴다.⁶⁾

2) 耑의 字形演變

[표 1] 耑의 字體別 字形表

字體	甲骨文 ⁷⁾		金文 ⁸⁾		小篆 ⁹⁾		戰國 ¹⁰⁾		隸書				楷書	
									古隸 ¹¹⁾	今隸 ¹²⁾				
字形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㉞	㉟	㊱	耑

갑골문 ㉔ ㉕이 해서 ‘耑’으로 연변된 것은 正變이다. 演變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갑골문 ㉔, ㉕의 상부 ㄹ와 ㄱ은 식물이 싹이 나서 줄기가 갈라져 나온 모습[ㄹ와 ㄱ]과 ‘물[·]’을, 하부의 ㄹ(㉔)과 ㄱ(㉕)은 식물이 뿌리를 내린 ‘땅[ㄹ의 一과 ㄱ의 冫]과 뿌리[ㄹ과 ㄱ]를 그렸다.

금문 ‘耑(㉖)’은 갑골문 ㉔에 비해 簡化와 符號化가 더욱 진행되었다. 갑골문에서 물을 나타낸 부근 ‘·’가 생략되었는데, 이는 해서 ‘耑’까지 쪽

6) 단옥재의 『說文解字注』에 “옛날에는 ‘發端[시초, 처음]’이란 뜻은 ‘耑’으로 썼으나, 지금 ‘端’으로 쓰면서 ‘耑’은 폐기되고, ‘耑’은 대부분 ‘오로지, 마음대로[專]’란 뜻으로 쓰인다.[古發端字作此, 今則端行而耑廢, 乃多用耑爲專矣]”라고 하였다. (段玉裁, 앞의 책, p.336.)
 7) 于省吾, 앞의 책, p.840.
 8) 高明 編, 『古文字類編』, 北京: 中華書局, 1980, p.106. 罍자 構件. 春秋齊侯壺.
 9) 許慎, 『說文解字』, p.149. 耑.
 10) 高明 編, 위의 책, p.459. 戰國 陶甬泉7,2.
 11) 方述鑫 等編, 『秦漢魏晉篆隸字形表』, 成都: 四川辭書出版社, 1985, p.496. 老子甲後 378.
 12) 方述鑫 等編, 위의 책, ㉔ p.387. 漢印徵, 耑의 構件. ㉕ p.108. 魏封孔羨碑, 耑의 構件. ㉞ p.19. 魏封孔羨碑, 耑의 構件 ㉟ p.19. 吳禪國山碑, 耑의 構件.

이어져 왔다. 갑골문의 상부 식물이 돋아나 줄기가 갈라진 모습 ‘ㄷ’는 하부 ‘ㄱ’가 생략되고, ‘ㄷ’의 상부 ‘ㄷ’만 ‘ㄷ[ㄷ]’로 연변되었다. 땅과 줄기를 그린 ㄷ(㉑)는 耑로 연변되었는데, 땅은 갑골문과 같이 ‘一’로, 뿌리 ‘ㄷ’는 ‘ㄷ’로 연변되었다. 사실 ‘耑’로의 연변은 갑골문 ㄷ와 耑를 복합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ㄷ에서 ‘耑’의 상부 ‘一’을, 耑에서 ‘耑’의 하부 ‘ㄷ’의 모습을 반영하였다. 문자 연변규율을 참고하면 ㄷ와 耑는 필연적으로 非象形, 符號化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이를 잘 반영한 자형이 耑(혹은 耑)이다. 耑은 ㄷ와 耑의 외곽 늘어진 ‘ㄷ’를 ㄷ로, 안쪽의 ‘ㄷ’를 ㄷ와 유사하게 변형 시킨 것이 耑(耑에서)이다.

소전 ‘耑’는 금문 ‘耑’와 기본적으로 동형이다. 금문의 상부 ‘ㄷ[ㄷ]’가 ‘ㄷ’로, 하부 耑는 ‘耑’로 연변되어, 금문보다 좀 더 장중한 만곡의 형태를 띤다.

전국문자 耑는 금문 ‘耑’를 더욱 간화시킨 것이다. 금문 상부 ‘ㄷ[ㄷ]’를 더욱 平直化시켜 ㄷ[ㄷ]로 쓰고, 땅을 그린 ‘一’은 생략하였으며, 하부 ‘耑’는 더욱 平直化시켜 耑로 썼다. ‘耑’의 상부 ㄷ는 ㄷ로 하부 耑는 耑로 썼다. 이는 현재 해서 ‘耑’의 하부와 거의 유사하다.

古隸 ‘耑’는 소전 耑와 기본적으로 同形이다. 소전 상부 ‘ㄷ’를 ‘ㄷ’로 썼는데, 이는 ‘ㄷ’의 기울기를 수평에 가깝게 書寫한 것이다. 하부는 소전 耑를 ‘耑’로 썼는데, 이는 소전의 ㄷ를 ㄷ로, 耑는 耑로 연변시킨 것이다. 이미 예서의 필획 특징인 평직화가 상당히 이루어졌다.

今隸 ㉑, ㉒, ㉓, ㉔ 중 ㉒, ㉓는 동일인에 의해 서사된 것이기 때문에 자형 역시 동일하고, 해서 耑에 가장 근접하였다. ㉑는 금예 중 가장 앞서 서사된 것이지만, 비각문자의 보수성을 반영하고 있어 해서 耑과의 유사성은 ㉒, ㉓보다 떨어진다.

今隸는 古隸 耑를 계승하였다. 耑의 상부 ㄷ를 ㉑耑는 방향을 바꾸어 세워 썼고(㉑), ㉒耑는 완전히 세워 썼으며(㉒) ㉓耑 ㉔耑는 약간 비스듬히 세워 썼다(㉓, ㉔). 耑의 하부 耑는, ㉑耑는 耑로 썼는데 이는 耑의 ㄷ를 ㄷ로,

土는 ㄹ로 서사한 것이다. ㄹ는 ㅅ(ㄹ)의 ㅅ를 ㄱ로 평직화시키고, 중앙에 豎劃(丨)을 쓴 것이다. ㄹ ㄹ ㄹ의 而, 而, 而 역시 고예 ㄹ의 연변이다. ㄹ가 땅을 그린 ‘一’을 ㄱ로, 뿌리는 ㅅ로 변형시킨 것인데 而, 而, 而는 땅은 ‘一’로, 뿌리는 ㄹ ㄹ ㄹ로 쓴 것이다. 금예는 소전, 고예와 비교하여 필획의 평직화가 확연하다.

해서 耑은 줄기를 나타낸 상부를 완전히 수평으로 썼고(山), 땅은 갑골문과 같이 一로, 뿌리는 ‘ㄹ’로 쓴 것인데, 이는 금예 ㄹ ㄹ ㄹ와 동일하다. 해서는 금예 ㄹ ㄹ ㄹ의 중앙 ‘丨’를 두 개의 豎劃으로 쓴 것이다. 갑골문 상부 짝을 그린 ‘ㄱ’가 해서에서 ‘山’로, 하부 땅과 뿌리를 그린 ㄹ가 ‘ㄹ’로 연변된 것은 正變이다.

2. 耑을 根源聲符로 한 形聲字

1) 聲符의 자형이 耑인 형성자

• 端[곧다 단]

『說文』, 「立部」에 “端은 ‘곧다.’이다. 立이 의미를 耑이 소리를 나타낸다. 반절은 ‘多官切[단]’이다.[端, 直也. 從立耑聲. 多官切]”라고 하였다. 端의 본의는 ‘바르다’이다.

• 湍[여울 단]

『說文』, 「水部」에 “湍은 빠르게 흐르는 여울이다. 水가 의미를 耑이 소리를 나타낸다. 반절은 ‘他耑切[단]’이다.[湍, 疾瀨也. 從水耑聲. 他耑切]”라고 하였다. 湍의 본의는 ‘여울’이다.

• 襜[풍신하다 단]

『說文』, 「衣部」에 “襜은 옷의 폭이 바르게 맞춰진 것이다. 衣가 의미를 耑이 소리를 나타낸다. 반절은 ‘多官切[단]’이다.[襜, 衣正幅. 從衣耑聲.]”

多官切”라고 하였다. 耑의 본의는 ‘옷깃의 바른 쪽’이다. ‘옷깃의 바른 쪽’으로부터 ‘풍신하다[넉넉하다], 길다, 옷깃의 쪽’ 등의 인신의가 나왔다. 지금도 우리 국어에 옷깃의 쪽을 ‘단’이라고 한다.

• 耑[오소리 단]

『說文』, 「豸部」에 “耑은 오소리이다. 豸가 의미를 耑이 소리를 나타낸다. 耑처럼 읽는다. 반절은 ‘他耑切[단]’이다.[耑, 獸也. 從多耑聲. 讀若耑. 他耑切]”라고 하였다. 耑의 본의는 ‘오소리’이다.

• 耑[관가름 하다 단]

『說文』, 「刀部」에 “耑은 ‘머리를 끊다.’이다. 刀가 의미를 耑이 소리를 나타낸다. 반절은 ‘耑耑切[단]’이다.[耑 斷齊也. 從刀耑聲. 耑耑切]”라고 하였다. 耑의 본의는 ‘끊다.’이다. 하지만 자원이 명확하지 않다. 단옥재는 위 『說文』 ‘斷齊’의 ‘齊’는 衍文이라고 하고 자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현응의 글에 이르길 “耑자는 聲類에서는 耑으로 썼다. 說文에 ‘耑은 머리를 베다, 또한 자르다.’라고 하였다. 허신의 설문 ‘首部’에 耑은 있고, 耑은 없으며, 刀部에는 耑자가 없다.”라고 하였다. 이는 후인들이 聲類의 耑자를 首部의 耑자로 고치고 또, 耑자를 刀部로 옮겨 놓은 것을 증명한다. 서개나 서현이 校補한 설문은 고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저본으로 한 ‘耑’자는 당연히 이 전문[설문]에서 삭제되어야 한다.¹³⁾

단옥재는 耑은 후인들이 『說文』에 끼워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글자를 『說文』에서 빼야 한다고 한다. 耑은 耑[오로지 전, 벨 단]을 후인들이 耑으로 고쳐서 『說文』에 삽입하였고, 부수 역시 首部¹⁴⁾에 있어야 하는

13) 段玉裁, 앞의 책, p.179, “而玄應書云, 耑聲類作耑, 說文耑, 斷首也. 亦截也. 然則許書首部有耑, 無耑. 刀部無耑. 後人以聲類之耑, 改首部之耑, 又移耑入刀部. 二徐本皆非古也. 此篆宜耑”

데 刀部로 옮겨 놓았다고 한다.

• 瑞부신 서

『說文』, 「玉部」에 “瑞는 玉으로 만든 부신이다. 玉과 耑이 의미를 나타낸다. 반절은 ‘是僞切[서]’이다.[瑞, 以玉爲信也. 從玉耑. 是僞切]”라고 하였다. 瑞의 본의는 ‘옥으로 만든 부신’이다. 이로부터 ‘홀[笏, 圭], 길조, 상서롭다, 경사롭다’ 등으로 인신되었다. 허신은 瑞는 玉과 耑로 이루어진 회의자로 보았다. 서개 역시 瑞는 깨달음[사실, 진실]의 실마리를 나타낸다. 會意이다.[徐鍇曰, 耑諦¹⁴也, 會意]라고 하여 회의자로 보았으나, 본의는 허신과 달리 ‘실마리’로 보았다.

위 허신의 분석은 일부분 부정확하다. 본의 ‘玉으로 만든 부신’은 믿을 만하다. 하지만 瑞가 玉과 耑으로 이루어진 회의라는 것은 믿을 수 없다. ‘耑’의 본의는 ‘시초[실마리]’이기 때문에 ‘부신’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徐鍇의 분석은 허신만도 못하다. 회의이고, 본의는 ‘깨달음[사실, 진실]의 실마리’라고 한 것 역시 믿을 수 없다.

단옥재의 『說文解字注』는 허신이 瑞에 대해 ‘以玉爲信也’라고 설명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 14) 『說文』에 ‘耑 + 首’인 𦘒이 있다. 𦘒의 소전은 ‘𦘒’인데, 단옥재처럼 자의가 ‘斷首’라고 하지는 않고 ‘𦘒也, 從耑從斷’이라고 하였다. ‘從耑從斷’은 곧 ‘斷首’란 말과 통한다. 耑과 𦘒이 혼용하게 된 것은 두 글자의 소리가 거의 같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說文』에 ‘𦘒’을 설명하면서 耑은 ‘혹 刀가 의미를 耑이 소리를 나타내는 𦘒(𦘒)으로 쓰기도 한다.[𦘒或從刀耑聲.]’고 하였다. 이는 허신 시대에 이미 耑과 𦘒이 독음이 유사하여 혼용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 15) 徐鍇가 말하는 ‘耑諦’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左傳』, 「成公6年」, 「鄭伯其死乎. 自棄也已. 視流而行速, 不安其位, 宜不能久.’의 杜預注에 “視流란 눈동자가 불안정한 모습이다.[視流, 不端諦.]”라고 하였는데, 徐鍇가 말하는 耑諦란 이곳에서 말하는 ‘端諦’와는 다른 ‘깨달음의 실마리’를 나타내는 듯하다.

『周禮』, 「春官·典瑞」의 ‘典瑞는 玉瑞와 玉器 보관을 담당한다.’의 주석에 이르길 “사람이 잡고서 드러내 보이는 것을 瑞, 귀신께 예를 올리는 것을 器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또, 이르길 “瑞는 부신이다.”라고도 하였다. 說文 ‘卩’자조의 설명에 이르길 “瑞는 부신이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瑞’와 ‘卩’ 두 글자가 전주이기 때문에 신에게 예를 올리는 그릇을 또한 ‘瑞’라 한 것이다. 瑞는 ‘圭’, ‘璧’, ‘璋’, ‘琮’을 모두 나타내는 말이다. 『說文』, 玉部, ‘璧’자에서 ‘瑁’자까지 배열된 15자는 모두 ‘瑞’ 종류에 속하기 때문에 이를 몽땅 통틀어서 말한 것이다. 인신해서 ‘祥瑞롭다.’로 쓰이는 것은 또한 ‘符節’처럼 신이 감응하기 때문에 얻어진 의미이다.¹⁶⁾

단옥재의 『說文解字注』는 『說文』의 ‘從玉耑’을 ‘從玉耑聲’으로 수정하였다. 즉, 허신이 회의로 본 것을 형성으로 수정한 것이다. 그리고 본의는 제사에 쓰이는 기물의 총명이고, 그 기명 중에 부신도 들어 있기 때문에 부신이라는 뜻도, 신께 드리는 제사에 쓰이기 때문에 ‘상서롭다.’는 ‘引伸義’를 갖게 되었다고 한다. 독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耑’의 음운은 내가 분류한 제 ‘十四部’에 속한다. 耑이 성부인 ‘瑞, 揣, 圖’은 음이 변하여 ‘十五部’에 속한다. 唐韻에서 반절로 ‘是僞切[서]’라고 하였기 때문에 다시 ‘十六部’에도 넣었다.¹⁷⁾

즉, 瑞는 玉이 의미를 耑이 소리를 나타내는 형성자로 본의는 허신이 말한 대로 제사에 소용되는 기물[부신]이라는 것이다. 단 허신이나 서개가 이를 굳이 회의로 본 것은 ‘耑의 음운변화와 관련 있다.’고 한다. 耑을 성부로 한 형성자들의 음운이 많이 변하여, 어느 것은 자신이 분류한 音韻表 14부에도, 15부에도, 16부에도 속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음운

16) 段玉裁, 앞의 책, p.13, “典瑞, 掌玉瑞玉器之藏. 注云, 人執以見曰瑞, 禮神曰器. 又云, 瑞, 節信也. 說文卩下云, 瑞信也. 是瑞, 卩二字爲轉注. 禮神之器亦瑞也. 瑞爲圭璧璋琮之總稱, 自璧至瑁十五字皆瑞也, 故總言之. 引伸爲祥瑞者, 亦謂感召若符節也.”

17) 段玉裁, 위의 책, p.13, “耑聲在十四部. 而瑞揣圖字音轉入十五部. 唐韻是僞切. 又入十六部”

변화가 컸기 때문에 허신이나 서개가 형성으로 보지 않고 회의로 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래 ‘耑이 성부인 형성자의 音韻考證’ 편에서 瑞의 성부가 耑임을 음운학적으로 살펴본다.

• 耑[중아리채 타]

『說文』, 「木部」에 “耑는 회초리이다. 木이 의미를 耑이 소리를 나타낸다. 한편으로는 ‘耑度[재다]’라고 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찌르다’라고 한다. 반절은 ‘兜果切[타]’이다.[耑, 箠也. 從木耑聲. 一曰耑度也. 一曰剺也. 兜果切]”라고 하였다. 耑의 본의는 ‘회초리’이다. 회초리로부터 ‘중아리 치다, 어기다, 어긋나다.’로 인신되었다.

• 耑[벼 늘어질 타, 단]

『說文』, 「禾部」에 “耑는 벼가 익어 늘어져 있는 모습이다. 禾가 의미를 耑이 소리를 나타낸다. 端처럼 익는다. 반절은 ‘丁果切[타]’이다.[耑, 禾垂兒. 從禾耑聲. 讀若端. 丁果切]”라고 하였다. 耑의 본의는 ‘벼가 익어 늘어진 모습’이다.

• 惴[두려워하다 취]

『說文』, 「心部」에 “惴는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다. 心이 의미를 惴이 소리를 나타낸다. 『시경』에 이르길 ‘전전궁궁 두려워하네.’라고 하였다. 반절은 ‘之瑞切[취]’이다.[惴, 憂懼也. 從心耑聲. 詩曰惴惴其慄. 之瑞切]”라고 하였다. 惴의 본의는 ‘두려워하다.’이다.

• 揣[헤아리다 취]

『說文』, 「手部」에 “揣는 ‘재다’이다. 手가 의미를 揣이 소리를 나타낸다. 높이를 재는 것을 ‘揣’라고 한다. 한편으로는 회초리를 치는 것을 나타낸다고 한다. 반절은 ‘初委切[취]’이다.[揣, 量也. 從手耑聲. 度高曰揣. 一曰捶之. 初委切]”라고 하였다. 揣의 본의는 ‘재다’인데, 회초리로 때린

다는 뜻도 있다고 하였다. ‘재다’와 ‘때리다’는 유사한 범주의 의의가 아닌 만큼 허신이 본의를 정확히 알고 있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단옥재의 『說文解字注』 역시 허신의 설을 보충만 하고 본의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

耑는 무게를 재는 것이다. 허신이 말한 ‘量’이란 경중을 저울질 하는 것이다. 称이란 저울을 가리키고, ‘銓’은 무게를 재는 것이다. (중략) 木부에 ‘耑’자가 있는데, ‘치다[筮]’가 본의이다. 그런데 耑는 ‘재다’란 뜻으로도, ‘짜다’란 뜻으로도 釋讀한다. 이는 소리와 뜻이 모두 耑와 같다. (중략) 높이를 재는 것을 ‘耑’라고 하는데 방언과 같다. 『左傳』에 “耑高卑[높낮이를 재다.]”의 두에 주에 “높이를 재는 것을 耑, 깊이를 재는 것을 仞이라 한다.”고 하였다.

내 생각에 『국어』에 ‘搏本肇末’라 하였는데 이곳의 ‘搏’는 곧 『맹자』에 ‘揣其本’이라 한 곳의 ‘揣’와 그 뜻이 같다. 揣의 자의 중 ‘때리다[捶]’라는 뜻은 몽둥이로 가책을 하는 것을 가리킨다. 耑를 ‘槿’로 해석하고, ‘揣’를 ‘捶’로 해석하는 것은 그 해석하는 논리가 똑같다.¹⁸⁾

단옥재의 『說文解字注』 역시 허신의 주장을 보충 설명하는데 그쳤다. 정리하면 耑는 ‘무게를 재다’가 본의인데, 木부에 ‘치다[筮]’란 뜻을 갖고 있는 ‘耑’자와 ‘재다’란 뜻을 공유한다고 하였다. 이는 耑, 耑가 소리와 뜻이 같다는 것으로, 이런 혼란은 첫째 耑가 형성자이기 때문이고, 둘째 독음과 구성 원리가 耑와 같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우선 耑, 耑 모두 耑이 성부이다. 또, 義符 ‘手’와 ‘木’이 드러내는 행위가 겹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手는 손동작을, 木은 나무란 기구를 사용하는 행위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본의를 ‘치다’로 釋讀해도 漢語文字學的으로 문제가 없다. 이는 위에서 이들을 槿, 捶로 해석한 예와 똑같다. 곧 槿, 捶의 聲符 ‘垂’와 耑, 耑의 聲符 ‘耑’은 近音이고, 義符가 耑, 耑와 똑같이

18) 段玉裁, 앞의 책, p.601, “耑, 量也. 量者, 称輕重也. 称者, 銓也. 銓者, 衡也. … 木部有耑字, 槿也. 一曰度也. 一曰劓也. 聲義皆与此篆同. … 度高曰耑, 方言同. 左傳: 耑高卑. 杜注云: 度高曰耑, 度深曰仞. 按國語: 搏本肇末. 搏, 卽孟子揣其本之揣, 其義同也. 捶者, 以杖擊也. 耑訓槿, 耑訓捶, 其意一也.”

木, 手이기 때문에 同義로 訓釋한 것이다.

다음은 揣의 독음에 관한 설명이다. 徐鍇는 허신의 ‘揣聲’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글자는 ‘揣’의 독음과는 가깝지 않다. ‘喘’, ‘邁’ 같은 글자들처럼 모두 마땅히 ‘揣’가 성부인데, 자형을 생략하여 ‘揣’으로 쓴 것이다.[徐鍇曰 此字與揣聲不相近, 如喘邁之類皆當從揣省.]

서개는 허신이 揣는 揣이 성부라 한 것을 ‘揣’가 성부라고 하였다. 서개는 ‘喘’, ‘喘’, ‘邁’ 등은 ‘揣’聲보다는 ‘揣’聲에 가깝다고 하였는데, 이는 서개가 활동했던 宋代에 이미 ‘揣’과 ‘揣’을 성부로 한 ‘揣’가 상당한 독음차가 있었음을 증명해준다. 즉, 서개 당시의 독음으로는 ‘喘’, ‘喘’, ‘邁’ 등이 揣聲 보다는 揣聲에 가깝기 때문에 揣聲임을 부정한 것이다.¹⁹⁾

그런데 단옥재는 『說文解字注』에서 허신이 ‘揣聲’이라고 한 것을 ‘端聲’으로 고치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揣의 端聲은 이는 ‘합음’으로 소리를 나타낸 것이다. 반절은 ‘初委切[취]’로 내가 분류한 상고음 ‘十四, 十五部’에 속한다. 내 생각으로는 방언에서 ‘재다’, ‘달다’의 揣를 ‘常絹反[선]’으로 발음하는 것이, 이것이 이 글자[揣]의 고음이라 생각한다. (중략) 그리고 ‘兜果切’로 읽기도 한다. 또, 요즈음 사람들의 언어생활 속에서 ‘달다’, ‘재다’를 ‘ㄷ[달다 철]’로도 사용하는데, 이는 위 방언에서 揣를 ‘常絹反[선]’으로 읽는 것을 ‘丁兼切[점]’으로 읽고, 바로 앞에서 말한 ‘ㄷ[달다 철]’은 ‘丁括切[질]’로 읽어 ‘輕重을 헤아린다’는 뜻으로 쓰는 것과 같다. 또, 揣의 或體는 그 음이 端과 쌍성이다.²⁰⁾

19) 하지만 음운학적으로 이들은 ‘揣’聲임을 확인된다. 역시 아래 ‘揣을 성부로 한 형성자의 음운고증’ 편에서 증명하고자 한다.

20) 段玉裁, 앞의 책, “從手端聲, 此以合音爲聲. 初委切, 十四十五部. 按方言常絹反, 是此字古音也. … 而讀兜果切. 又今人語言用故斂字, 上丁兼切, 下丁括切, 知輕重也. 亦揣之或體, 其音爲端之雙聲.”

단옥재의 설명 역시 耑의 독음이 상당히 복잡하게 발전하였음을 나타낸다. 우선 허신이 耑聲이라 한 것을 端聲이라 하고, 자신이 분류한 고음 14부에도 15부에도 넣었으며, 방언이나 실제 사용에서는 ‘常絹反[선]’, ‘丁兼切[점]’, ‘丁括切[절]’로도 읽는다고 하였다. 이들은 모두 耑의 반절 ‘初委切[취]’와 상당한 독음차이가 난다.

• 喘[숨 헐떡거리다 천]

『說文』, 「口部」에 “喘은 숨을 빨리 쉬는 것이다. 口가 의미를 耑이 소리를 나타낸다. 반절은 ‘昌沈切[천]’이다.[喘, 疾息也. 從口耑聲. 昌沈切]”라고 하였다. 喘의 본의는 ‘숨을 빨리 쉬’이라고 하였다.

• 遄[빠르다 천]

『說文』, 「辵部」에 “遄은 오고감이 잦은 것이다. 辵이 의미를 耑이 소리를 나타낸다. 『易』에 이르길 ‘以事遄往’이라 하였다. 반절은 ‘市緣切[천]’이다.[遄, 往來數也. 從辵耑聲. 易曰以事遄往. 市緣切]”라고 하였다. 遄의 본의는 ‘왕래가 잦은 것’이다.

• 膾[종아리 천]

『說文』, 「肉部」에 “膾은 종아리이다. 肉이 의미를 耑이 소리를 나타낸다. 반절은 ‘市沈切[천]’이다.[膾, 腓腸²¹⁾也. 從肉耑聲. 市沈切]”라고 하였다. 膾의 본의는 ‘종아리’이다.

• 𩚑[성 천]

『說文』, 「欠部」에 “𩚑(𩚑)은 입에서 나오는 기운이 뺏어가는 모양이다. 欠이 뜻을 耑이 소리를 나타낸다. ‘車輜’의 ‘輜’처럼 읽는다. 반절은 ‘市緣切[천]’이다.[𩚑, 口气引也. 從欠耑聲. 讀若車輜. 市緣切]”라고 하였다.

21) 腓腸은 종아리, 장딴지를 나타낸다. 『說文』, 「肉部」에 “腓는 종아리이다.[腓, 脛膑也]”라고 하였다.

𪛗의 본의는 ‘입 기운’이다.

• 𪛗[사양할 전]

『說文』, 「言部」에 “𪛗은 ‘자주’이다. 한편으로는 서로 사양하는 것이라고도 한다. 음이 의미를 𪛗이 소리를 나타낸다. 專처럼 읽는다. 반절은 ‘尺絹切[전]’이다.[𪛗, 數也. 一曰相讓也. 從言耑聲. 讀若專. 尺絹切]”라고 하였다. 허신은 𪛗의 본의를 ‘자주’라고 하였는데 義符를 고려하면 ‘사양하다’가 본의로 보인다.

• 𪛗[삼가다 전]

『說文』, 「頁部」에 “𪛗은 삼가는 모양이다. 頁이 의미를 𪛗이 소리를 나타낸다. 반절은 ‘職緣切[전]’이다.[𪛗, 頭顯顯謹兒. 從頁耑聲. 職緣切]”라고 하였다. 𪛗은 본의가 ‘삼가는 모양’이다.

• 𪛗[각단 단]

『說文』, 「角部」에 “角𪛗은 짐승이다. 모양은 豕와 비슷하다. 鬃을 활을 만들기에 안성맞춤인데 ‘胡休多’란 나라에서 생산된다. 角이 의미를 𪛗이 소리를 나타낸다. 반절은 ‘多官切[단]’이다.[角𪛗, 獸也. 狀似豕, 角善爲弓, 出胡休多國. 從角, 耑聲. 多官切]”라고 하였다.

𪛗[각단]은 코 근방에 鬃이 난 상상속의 동물이다. ‘胡休多’국에서 생산된다고 하였는데 ‘胡休多’가 어디인지는 不明하다. 鬃로 활을 만든다는 것으로 보아 아마 지금의 코뿔소 비슷한 짐승을 가리키는 듯하다. (古時 활은 물소 鬃이 主材料이었음.)

• 籊[대그릇 전]

『說文』, 「竹部」에 “籊은 대나무를 쪼개서 둥그렇게 만들어 곡식을 담아두는 것이다. 竹이 뜻을 𪛗이 소리를 나타낸다. 반절은 ‘市緣切[전]’이다.[以判竹. 圓以盛穀也. 從竹, 耑聲. 市緣切]”라고 하였다. 籊은 본의가

곡식을 담아 두는 ‘대그릇’이다.

• 𪗇[작은 잔 진]

『說文』, 「卮部」에 “𪗇은 작은 술잔이다. 卮가 뜻을 耑이 소리를 나타낸다. ‘때리다[捶擊]’라고 할 때의 ‘捶’처럼 읽는다. 반절은 ‘旨沘切[진]’이다.[小卮也. 從卮, 耑聲. 讀若捶擊之捶. 旨沘切.]”라고 하였다. 𪗇은 본의가 ‘작은 술잔’이다.

• 𪗈[누르고 검은 빛 단]

『說文』, 「竹部」에 “𪗈은 黃黑色을 나타낸다. 黃이 의미를 耑이 소리를 나타낸다. 반절은 ‘他耑切[단]’이다.[黃黑色也. 從黃, 耑聲. 他耑切.]”라고 하였다. 𪗈의 본의는 ‘황흑색’이다.







• 𪗉[나무 이름 천]

『說文』, 「竹部」에 “𪗉은 나무이름이다. 木이 뜻을 𪗉이 소리를 나타낸다. 반절은 ‘市緣切[천]’이다.[木也. 從木, 𪗉聲. 市緣切.]”라고 하였다. 𪗉은 본의가 ‘나무이름’이다.

2) 聲符의 자형이 𪗇인 형성자

(1) 𪗇(耑)의 字形演變

〔표 2〕 𪗇(耑)의 字體別 字形表

字體	甲骨文	金文 ²²⁾		小篆 ²³⁾	隸書		楷書	
		①	②		古隸 ²⁴⁾	今隸 ²⁵⁾		
字形	不見	① 	② 			① 	② 	耑(段의 構件)

22) 高明, 앞의 책, p.83. ① 段(𪗇)의 構件. 周中 段簋 ② 段(𪗇)의 構件. 周中 段金盃尊

耑은 段의 構件으로 쓰일 때는 ‘𠂔’으로 쓴다. 段의 갑골문 자형은 찾을 수 없어 정확한 자형연변을 알 수 없지만, 한자학적인 依據는 설명 가능하다.

우선 段은 左右結構의 한자이다. 耑은 상형자이지만 隸變에 의해 마치 上下結構의 한자와 같이 ‘𠂔’, ‘耑’, ‘耑’ 등으로 演變되었다. (‘山 + 而’처럼 演變됨.) 그렇기 때문에 좌우결구의 段에서는 필연적으로 이들을 ‘𠂔’처럼 변형시켜야 자형미가 살아날 수 있다. 만약 段에서 ‘耑’을 변형시키지 않고 오른쪽 ‘攴’와 함께 좌우로 結構 시킨다면 (耑 + 攴) 자형미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불 耑의 자형을 생략, 변형시켜 ‘𠂔’으로 쓴 것이다.

‘𠂔’은 금문에서 해서까지 ‘𠂔(𠂔) - 𠂔 - 𠂔 - 𠂔, 𠂔 - 𠂔’의 자형 연변을 거쳤다. 금문에서 해서까지 큰 자형차이가 없는데, 금문에서 이미 하부의 뿌리를 나타내는 부분을 생략하고 상부만 변형시켜 썼다.

耑의 정상적인 자형연변 ‘耑, 耑[갑골문] - 耑, 耑[금문] - 耑[소전] - 耑[전국] - 耑[古隸] - 耑, 耑, 耑[今隸] - 耑[해서]’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漢字學的으로 理據를 찾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耑은 上部 식물의 줄기 모습을 소전까지는 세워 썼지만, 예서 단계에서 수평으로 演變되기 시작하면서 楷書 ‘耑’에서는 ‘山’으로 연변되었다. 하지만 ‘𠂔’은 갑골문, 금문, 소전, 今隸의 일부 글자들이 ‘식물의 줄기 모습’을 세워 쓴 자형을 계승하여 연변되었다. 금문의 耑[耑], 소전의 耑, 전국문자의 耑, 금예의 耑 등의 자형에서 下部 뿌리부분을 생략하고 上部만 平直筆로 세워 쓴 것이 ‘𠂔’이다. 하부를 생략했지만 아직 그 일부의 흔적이 남아있기도 하다. 金文 ‘𠂔[𠂔]’는 땅[一]과 뿌리가 생략되었지만 소전과 예서의

23) 段의 부근. 段은 소전에서 ‘耑’으로 썼다.

24) 方述鑫 等編, 앞의 책, p.206. 段(𠂔)의 構件. 孫賓8

25) 方述鑫 等編, 위의 책, p.206. ① 段(𠂔)의 構件. 武威簡 服傳4. ② 段(𠂔)의 構件. 景北海碑陰.

‘𠄎, 𠄏, 𠄐’은 땅의 흔적이 또, 예서 ‘𠄑’는 희미하게나마 땅뿐만이 아니라 뿌리를 나타내는 부분도 남아있다.

이상과 같이 段의 聲符 ‘𠄎’은 ‘耑’의 변체임이 漢字學的으로 소명되었지만, 이를 더욱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耑과 段의 음운학적 고증 또한 필요하다. 耑은 上古音이 元韻 端紐이고, 段은 上古音이 元韻 定紐이다. 이들은 韻部는 疊韻, 聲紐는 旁紐[端紐와 定紐]의 近音으로 ‘𠄎’이 ‘耑’의 異寫임이 음운학적으로 증명된다.²⁶⁾

(2) 𠄎을 성부로 한 형성자

• 段[불릴 단]

『說文』, 「段部」에 “사물을 쳐서 불리는 것이다. 𠄎²⁷⁾가 의미를 耑이 소리를 나타내는데 자형이 생략되었다. 반절은 ‘徒玩切[단]’이다.[椎物也. 從段, 耑省聲. 徒玩切.]”라고 하였다. 즉 段의 본의는 ‘불리다[담금질 하다]’이다.

• 𠄎[신 뒤축 끈 단]

26) 王力은 『同源字典』에서 상고음을 29개의 韻部와 33개의 聲紐로 분류하고, 韻部는 疊韻, 對轉, 旁轉, 通轉으로, 聲紐는 雙聲, 準雙聲, 旁紐, 準旁紐, 鄰紐로 音近관계를 제시하였다. 본고는 왕력의 설을 音近의 준거로 삼는다. (王力, 『同源字典』, 北京: 商務印書館, 1987, pp.12-20. 참조.)

27) 『說文』, 「段部」에 “𠄎(축)는 팔모의 창으로 사람을 찢어 죽이는 것이다. 『禮』에 ‘𠄎은 대나무를 여러 개 묶어 만들되 팔모가 되도록 한다. 길이는 1장 2척이고, 전차에 쏘고 여러 대의 전차가 한꺼번에 앞으로 내달린다.’라고 하였다. 又가 의미를 几가 소리를 나타낸다. 반절은 ‘市朱切[수]’이다.[以投殊人也 禮段以積竹八 觚長丈二尺 建於兵車, 車旅賁以先驅 從又几聲 市朱切]”라고 하였다.
허신이 성부라고 한 几는 현재 獨用되고 있는 几[몇 기] 혹은 几[안석 궤]가 아닌 ‘수[几. 소전은 ㄱ입]’이다. 허신은 『說文』, 「几部」에서 “새가 짧은 날개로 파다 파닥 나는 모습이다. 상형이다. 무릇 几(수) 종류는 모두 부수 几(수)를 따른다. 殊처럼 읽는다. 반절은 ‘市朱切[수]’이다.[鳥之短羽飛几也 象形凡几之屬皆從几讀若殊 市朱切]”라고 하였다.

『說文』, 「韋部」에 “鞞은 신발 뒤축에 붙인 끈이다. 韋가 뜻을 段이 소리를 나타낸다. 반절은 ‘徒玩切[단]’이다. 鞞은 오른쪽 部件을 혹 ‘糸’로 바뀌 鞞(緞)로도 쓴다.[履後帖也. 從韋段聲. 徒玩切. 鞞鞞或從糸.]”라고 하였다. 緞으로 쓰는 것은 재료의 변화에 따른 이체자의 생산이다. 끈, 신발의 뒤 축 끈의 재료가 가죽종류에서 실 종류로 바뀌었음을 나타낸다.

• 礮[숫돌] 단

『說文』, 「石部」에 “礮는 물건을 가는 돌이다. 石이 의미를 段가 소리를 나타낸다. 『春秋傳』에 이르길 ‘鄭公의 손자 礮의 字가 子石이다.’라고 하였다. 반절은 ‘乎加切[하]’이다.[礮, 厲石也. 從石段聲. 春秋傳曰, 鄭公孫 礮字子石. 乎加切]”라고 하였다. 礮의 본의가 ‘숫돌’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단옥재의 주장에 의하면 본의가 정확하지 않다.

礮[숫돌 단]과 礮[숫돌 하]는 자형이 유사하여 흔히 글자와 字義를 혼용한다. 위 『說文』 역시 이들 두 글자를 혼동하여 ‘礮’을 ‘礮’로 쓰고, 본의를 ‘숫돌’로 해석하였다. 글자의 혼동에 대해 단옥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礮는 篆書로 예전에는 ‘礮’로 썼다. 九經字樣에서 『설문』을 인용한 것에도 그렇게 썼다. 지금 시경의 석문 및 옥편을 참고하여 ‘礮’으로 바로 잡는다.

‘礮石’은 본래 ‘厲石’으로 썼는데 『시경』 석문에서 인용한 것으로부터 그렇게 쓰기 시작하였다. 이를 ‘礮石’으로 바로 잡는다. 『시경』, 「大雅」에 ‘取厲取礮’라고 썼는데, 요즈음 나오는 『시경』에는 ‘礮’을 ‘鍛’으로 쓴다. 毛傳에 이르길 ‘礮은 礮石이다. (요즈음 본에는 글자 한 글자가 빠져있다.)’라고 하였는데, 모형의 箋에 이르길 ‘礮石 (이는 모형의 전을 해석하는 것임)은 이로써 바탕을 담글질하는 물건이다.’라고 하였다. 모형의 해석 의도는 이 돌맹이는 담글 질 할 수 있는 받침대[榘質]²⁸⁾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는 곧 ‘礮石’이란 돌맹이의 이름을

28) 榘質은 다듬잇돌, 도마, 밀에 까는 판대기 등을 나타낸다. 『詩』, 「大雅·公劉」, “取厲取鍛”의 唐 孔穎達 疏에 “質은 모탕이다. 쇠를 불릴 때 만드신 산에서 나는 돌맹이로 모탕을 삼으려 그것을 취했음을 나타낸다.[質, 榘也. 言鍛金之時須山石爲榘質, 故取之也.]”라 하였고, 『戰國策』, 「秦策三」에 “지금 신의 가슴속에는 밀에 까는 모탕[판대기]으로도, 도끼를 기다릴 수도 없으

나타내는 것이다. 요즈음 ‘물건을 담금질한다.’라고 할 때의 ‘段’은 ‘鍛’으로 많이 쓰는데 옛날에는 단지 ‘段’으로만 썼다. 『考工記』에 ‘段氏爲鑄器’와 『禮記』에 ‘段脩’는 모두 글자를 ‘段’자로 쓴 것이 그런 경우이다.²⁹⁾

단옥재는 礩은 篆書로 예전에 ‘礩’로 썼는데 이는 잘못이고, 아울러 요즈음 ‘불리다’라는 뜻의 段을 鍛으로도 쓰는데 예전에는 段으로 썼다고 한다. 또, 위 『說文』에서 ‘礩石’을 ‘厲石[숫돌]’으로 썼는데 역시 잘못이기 때문에 ‘礩石’으로 바로 잡는다고 하고, ‘厲石’으로 잘못 쓴 것은 『詩經』의 釋文에서부터 쓰기 시작하여 사람들이 무조건 따라 쓰게 되었다고 한다. 礩石은 숫돌[厲石]과는 다른, 사물을 불릴 때 쓰는 모탕이라고 한다. 礩石이 ‘사물을 불리는 모탕’의 뜻을 갖게 된 것은 ‘段’의 ‘불리다’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한다.

단옥재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해서에 ‘礩[숫돌 단]’과 ‘礩[숫돌 하]’가 있는데, 위 『說文』의 표제자 ‘礩(하)’는 자형의 유사로 인한 ‘礩(단)’의 誤寫라고 한다. 그리고 두 글자의 자형이 유사하기 때문에 ‘礩[숫돌 단]’을 ‘段(가)’가 성부인 형성자로 인식하여 ‘礩(하)’로 읽게 되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단옥재의 『說文解字注』는 『說文』에서 표제자로 ‘礩(하)’로 쓴 것을 ‘礩(단)’으로 고치고, 篆文도 ‘礩[숫돌 하]’가 아닌 ‘礩[숫돌 단]’으로 고쳤으며, 허신의 구조분석 ‘從石段聲’도 ‘從石段. 段亦聲’으로 수정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다른 책들에 ‘從石段聲’이라고 썼는데 지금 ‘從石段, 段亦聲’으로 수정한다. 이는 會意 冓 形聲자이다. 『說文』, 「冓部」에 이르길 ‘段은 물건을 담금질 하는 것

니 어찌 왕께 일을 아릴수가 있겠습니까?今臣之胸不足以當樵質, 要不足以待斧鉞, 豈敢以疑事嘗試於王乎?’라고 하였다.

29) 段玉裁, 앞의 책, p.449, “礩, 篆舊作礩. 九經字樣所引說文已然. 今依詩釋文及玉篇正. 礩石本作厲石. 自詩釋文所引已然, 今正. 大雅取厲取礩, 今本作取鍛, 當依釋文本又作礩. 毛傳曰 ‘礩, 礩石也.(今本奪一字)’箋云, 礩石(此釋傳)所以爲鍛質也. 箋意此石可爲樵段之樵質, 是則礩石者石名. 樵段字今多用鍛, 古祇作段. 考工段氏爲鑄器, 禮經段脩, 字皆作段是也.”

이다. 반절은 丁亂切[단]이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형성이 되는 것 외에도 회의가 된다. 礮는 반절이 '都亂切[단]'이고, 내가 나눈 옛 음 제 14부에 속한다.³⁰⁾

단옥재는 礮를 '從石段. 段亦聲'으로 수정하고 會意兼 形聲자라고 하였다. '從石段'이라 한 것은 礮의 본의가 숫돌이 아닌 사물을 불리[段]는 모탕[石]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장간에 쇠를 불릴 때 받침대로 사용하는 모탕 같은 것을 나타낸다. 단옥재는 礮石과 厲石이 서로 다른 사물임을 段과 厲의 용법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段과 厲는 확실히 두 가지의 일이기 때문에 '礮石'과 '厲石'도 반드시 서로 다른 물건이다. 『尙書』, 「柴誓」에 '段乃戈矛' 불려서 창을 만들고, 厲乃鋒刃[갈아서 날을 세운다.]'라고 하였다. 이는 곧 '段'은 불려서 그 본질을 단단히 한다는 것이고, '厲'는 갈아서 그 날을 예리하게 한다는 것이다. 『시경』에 '取厲取鍛'이라 한 것 또한 매우 분명히 厲와 礮[鍛]를 분별하여 말한 것이다. 『毛傳』 또한 '礮石'이라고 확실하게 지적하였는데, 어찌 허신은 이를 뒤섞어 혼동을 하여 '礮'를 '厲石'으로 풀이하였단 말인가! (중략) 옛날부터 본래 '礮'와 '礮' 두 글자가 모두 존재하여 오류를 일으키게 되었다. 이는 마치 『說文』의 「鼎部」에 '鬲'과 '鬯' 두 개의 篆文이, 「衣部」에 '袵'과 '衿' 두 개의 전문이 있는 것과 같은데, 모두 형체가 서로 유사하여 두 자가 합쳐져서 하나의 글자가 된 것과 같다.³¹⁾

'段'은 불려서 그 본질을 단단히 하는 것이고, '厲'는 갈아서 날을 예리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礮石'과 '厲石'의 뜻도 다르다고 한다. 그리고 '礮'와 '礮'를 혼용하는 것은 유사한 글자가 존재하기 때문인데, 『說文』, 「鼎部」에 '鬲'과 '鬯'이, 「衣部」에 '袵'과 '衿' 있어 이들을 혼동하는 것과

30) 段玉裁, 앞의 책, p.449, “各本作從石段聲四字. 今正(從石段, 段亦聲), 會意兼形聲也. 段部曰段, 椎物也. 丁亂切, 故爲會意. 礮, 都亂切, 十四部”

31) 段玉裁, 위의 책, pp.449-450, “段與厲絕然二事, 礮石厲石必是二物. 尙書柴誓, 段乃戈矛, 厲乃鋒刃. 段之欲其質之堅也. 厲之欲其刃之利也. 詩取厲取鍛亦明明分別言之, 毛傳亦既確指云礮石矣. 豈許君於此乃忽濶濶之, 訓礮爲厲石乎. … 古本礮皆而有致舛譌. 如鼎部之鬲鬯二篆, 衣部之袵衿二篆, 皆以形似致合爲一字.”

같다고 한다.

이렇게 글자가 유사함으로 글자를 혼동하거나 잘못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예컨대 컴퓨터 한글에 ‘ㄱ[펴다 선]’을 ‘궁’으로 읽는 것은 ‘ㄱ[펴다 선]’의 자형이 ‘ㄱ[뺨다 궁]’과 유사하기 때문에 일으킨 혼동이다. 또, 𪎗[긋은 쌀 비]와 𪎗[긋은 쌀 비]도 聲符가 ‘比’와 ‘北’으로 엄연히 다른데도 모두 ‘긋은 쌀 비’로 읽는 것도 자형의 유사로 말미암은 혼동이다.

단옥재는 위 허신의 풀이 ‘鄭公孫瑕字子石’에 대해서도 ‘鄭公孫段字子石’으로 고치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段은 다른 본에는 ‘瑕’로 쓰고 반절을 ‘乎加切[하]’라고 하였는데 매우 잘못되었다. ‘瑕’자가 잘못 쓰였다고 ‘瑕(단)’字로 고치는 것 또한 옳지 않은 듯하다. 대개 이는 경전에서 말한 字를 인용한 예에 속하는데, ‘公孫段의 字는 子石이다.’라는 말은 ‘瑕’자가 ‘段’과 ‘石’으로 이루어진 會意자임을 증명한다. 『春秋傳』은 古文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춘추전』에 나온 ‘段’은 ‘瑕’의 고문이다.³²⁾

춘추시기 鄭公의 후손 ‘瑕’는 ‘瑕’가 아닌 ‘段’이 옳다고 한다. 단옥재가 이렇게 古時人의 이름을 수정할 수 있는 것은 作字法을 참고한 것이다. 作字法에 의하면 ‘瑕’의 字 ‘子石’의 ‘子’는 접두사이고 ‘石’만이 이름과 관련 있다. 字는 이름과 상보적 관계로 짓기도 한다. 즉, 字를 통해 이름을 보장한다. 이런 作字法에 비춰보면 鄭公의 후손 이름이 段이기 때문에 字를 石으로 지은 것이고, 段과 石을 결합하면 ‘연마하여 훌륭한 사람이 된다.[瑕]’는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연마하여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뜻은 언뜻 ‘瑕’로 써도 되는 듯하지만, 단옥재는 ‘瑕’자는 義符인 ‘石’은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聲符인 段가 의미를 가질 수 없어 상보성을 떨 수 없다고 한다. 반드시 이름이 ‘段[불리

32) 段玉裁, 앞의 책, pp.449-450, “段各本作瑕, 乎加切, 繆甚矣. 而改爲瑕字者恐亦尙未是. 蓋此引經說字之例, 舉公孫段字子石, 以證瑕之從段石會意也. 春秋傳多古文. 段者, 瑕之古文也.”

다]’이어야 石과 상보적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옥재는 그렇기 때문에 礮[숫돌 하]는 분명 오류이지만, 礮[숫돌 단]으로 보는 것도 漢語文字學的으로 옳지 않다고 한다. 반드시 ‘段’이어야 ‘논리적으로 맞다.’고 한다. 이름 段과 字 石이 결합되어야 ‘礮[모탕]’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이름이 礮이면 이미 그 뜻이 ‘모탕’이기 때문에 字 ‘石’은 그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礮(하)’와 ‘礮(단)’은 자형과 자의가 유사하여 혼동하기 쉽다. 부지불식간 ‘礮(하)’로 誤寫하게 되었을 텐데 단옥재가 作字法으로 이를 수정하였다. 단옥재의 설명이 합리적이다.

• 𪔵[꿌을 단]

『說文』, 「卵部」에 “𪔵은 계란이 꺾어서 부화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卵이 의미를 段이 소리를 나타낸다. 반절은 ‘徒玩切[단]’이다.[卵不孚也. 從卵, 段聲. 徒玩切.]”라고 하였다.

• 鍛[쇠 불릴 단]

『說文』, 「金部」에 “鍛은 작은 풍로를 만들어 쇠를 불리는 것을 가리킨다. 金이 뜻을 段이 소리를 나타낸다. 반절은 ‘丁貫切[단]’이다.[小治也. 從金, 段聲. 丁貫切.]”라고 하였다.

Ⅲ. 耑을 根源聲符로 한 형성자의 音韻考證

1. 耑이 聲符인 형성자의 音韻考證

1) 耑³³⁾·端·襍·耑·耑·耑·耑·耑의 上古, 中古音

33) 郭錫良, 『漢字古音手冊』, 中國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86, p.220. (이하 고증 대상 한자의 상고 중고음은 모두 郭錫良의 『漢字古音手冊』에서 채록하였다. 출처를 생략한다.)

- ①耑 : 上古音 元韻 端紐 陰平聲. 中古音 桓韻 端紐 平聲.
- ②端 : 上古音 元韻 端紐 陰平聲. 中古音 桓韻 端紐 平聲.
- ③耑 : 上古音 元韻 端紐 陰平聲. 中古音 桓韻 端紐 平聲.
- ④耑 : 上古音 元韻 端紐 陰平聲. 中古音 桓韻 端紐 平聲.
- ⑤耑 : 上古音 元韻 端紐 陰平聲. 中古音 桓韻 端紐 平聲.
- ⑥耑 : 上古音 元韻 端紐 陰平聲. 中古音 桓韻 端紐 平聲.
- ⑦耑 : 上古音 元韻 透紐 陰平聲. 中古音 桓韻 透紐 平聲.
- ⑧耑 : 上古音 元韻 透紐 陰平聲. 中古音 桓韻 透紐 平聲.

위 ①~⑧은 우리 한자음으로 독음이 ‘단’이다. 음운관계를 보면, ①~⑥은 上古音이 元韻 端紐 陰平聲, 中古音이 桓韻 端紐 平聲으로 동음이다. ⑦과 ⑧ 역시 上古音이 元韻 透紐 陰平聲, 中古音이 桓韻 透紐 平聲의 동음이다. ①~⑥과 ⑦, ⑧은 徹韻[韻部], 旁紐[端과 透紐]의 近音이다.

2) 遄·箒·歔·喘·諱의 上古, 中古音

- ⑨遄 : 上古音 元韻 禪紐 陽平聲. 中古音 仙韻 禪紐 平聲.
- ⑩箒 : 上古音 元韻 禪紐 陽平聲. 中古音 仙韻 禪紐 平聲.
- ⑪歔 : 上古音 元韻 禪紐 陽平聲. 中古音 仙韻 禪紐 平聲.
- ⑫喘 : 上古音 元韻 昌紐 上聲. 中古音 獮韻 昌紐 上聲.
- ⑬諱 : 上古音 元韻 章紐 陰平聲. 中古音 仙韻 章紐 平聲.
- ⑭巔 : 上古音 元韻 章紐 陰平聲. 中古音 仙韻 章紐 平聲.

위 ⑨~⑭는 우리 한자음으로 독음이 ‘천’, ‘전’이다. 음운관계를 보면, ⑨~⑪은 上古音이 元韻 禪紐 陽平聲, 中古音이 仙韻 禪紐 平聲으로 同音이다. 아울러 ⑨~⑭는 疊韻[元韻], 旁紐[禪, 章, 昌紐]의 近音이다.

1)과 2)의 ①~⑭의 음운관계는 疊韻[元韻], 準雙聲[端과 章紐, 透와 昌紐] 혹은 旁紐[端과 透, 章과 昌, 禪紐]의 近音이다. 이상은 우리 한자음으로 ‘단’, ‘천’, ‘전’, ‘타’, ‘취’의 독음을 가지고 있다.

3) 揣·惔·瑞의 上古, 中古音

- ⑮揣 : 上古音 歌韻 初紐. 中古音 紙韻 初紐 上聲.
- ⑯惔 : 上古音 歌韻 章紐. 中古音 眞韻 章紐 去聲.
- ⑰瑞 : 上古音 歌韻 禪紐. 中古音 眞韻 禪紐 去聲.

위 ⑮~⑰은 우리 한자음으로 독음이 ‘취’, ‘서’이다. 음운관계는 疊韻 [歌韻, 旁紐初, 章, 禪紐]의 近音이다. 1), 2)의 ①~⑭와 ⑮~⑰의 상고음의 음운관계를 보면, 韻部는 對轉[元韻과 歌韻]이고, 聲紐는 雙聲[⑬, ⑭, ⑯의 章紐], 準雙聲[昌, 初紐. 端, 章紐], 旁紐[章, 禪紐], 準旁紐[端, 禪紐], 혹은 隣紐[端, 初紐]의 近音이다. 특히 瑞와 揣은 현재의 한자음으로 읽었을 때 독음차이가 커, 揣이 瑞의 根源聲符임을 인지하기 어려우나 이들은 對轉[歌韻과 元韻], 準旁紐[端, 禪紐]의 근음으로 음운학적으로 揣이 瑞의 聲符임이 증명된다.

이외 揣[회초리 타], 揣[장판지 천], 揣[나무 이름 천], 揣[작은 잔 전], 揣[누르고 검은 빛 단]의 상고음은 찾을 수 없었지만 성부가 揣임은 분명하다.

2. ㄷ이 聲符인 형성자의 音韻考證

- ①段 : 上古音 元韻 定紐 去聲. 中古音 換韻 定紐 去聲.
- ②殿 : 上古音 元韻 定紐 去聲. 中古音 換韻 定紐 去聲.
- ③殿 : 上古音 元韻 定紐 去聲. 中古音 緩韻 定紐 去聲.
- ④殿 : 上古音 元韻 端紐 去聲. 中古音 換韻 端紐 去聲.
- ⑤殿 : 上古音 元韻 端紐 去聲. 中古音 換韻 端紐 去聲.

위 ①~⑤는 우리 한자음으로 독음이 ‘단’이다. 상고음은 韻部는 疊韻 [元韻], 聲紐는 雙聲[①, ②, ③의 定紐, ④, ⑤의 端紐], 혹은 旁紐[定紐와 端紐]의 同音 혹은 近音이다. 이들과 앞의 성부의 자형이 ‘揣’을 유지하

고 있는 형성자들(①~⑱)과는 同音 혹은 近音 관계이다. 특히 耑과 段은 疊韻[元韻], 旁紐[定紐와 端紐]의 近音이기 때문에, 段이 ‘耑’을 성부로 한 형성자라는 허신의 주장이 음운학적으로 증명된다.

IV. 結語

耑의 본의는 ‘시초’이다. 갑골문은 ‘耑’로 썼는데, 상부 ‘丩’는 식물 싹의 줄기 ‘丩’와 물 ‘冫’을, 하부 ‘冫’는 땅 ‘一’과 여기에 뿌리를 내린 모습 ‘冫’를 그려서 식물이 처음 싹이 돋아남 즉, ‘시초’란 뜻을 나타내었다.

갑골문 ‘耑’에서 해서 耑로의 자형연변을 정리하면 ‘耑[갑골문] - 耑[금문] - 耑[소전] - 耑[전국문자] - 耑[古隸] - ①耑, ②耑, ③耑, ④耑[今隸] - 耑[해서]’과 같다.

금문 ‘耑’는 갑골문 ‘耑’에 비해 간화되었다. 특히 물을 나타낸 ‘冫’가 생략되었는데, 이는 해서 ‘耑’까지 그대로 이어져 왔다. ‘耑’는 갑골문의 식물 줄기를 그린 ‘丩’의 하부 ‘丩’가 생략되고, ‘丩’의 상부 ‘丩’만 ‘冫’로 변형시킨 것이다. 땅과 줄기를 그린 耑는 갑골문 ‘冫’를 ‘冫’로 연변시킨 것이다.

소전 ‘耑’는 금문 ‘耑’와 기본적으로 같다. 금문의 ‘冫’를 ‘冫’로, 耑는 ‘耑’로 썼다. 금문보다 좀 더 장중한 만곡의 형태를 띤다.

전국문자 ‘耑’는 금문 ‘耑’와 소전 ‘耑’을 더욱 간화시킨 것이다. 특히 필획의 平直化가 두드러진다. 금문의 상부 ‘冫’를 冫로, ‘一’은 생략하고, 하부 ‘冫’는 冫로 썼다.

古隸 ‘耑’는 소전 ‘耑’와 기본적으로 동형이다. 상부는 소전 ‘冫’를 ‘冫’로 썼다. 이는 ‘冫’의 기울기를 수평에 가깝게 書寫한 것이다. 하부 ‘冫’는 소전 冫의 연변으로 冫를 冫로, 冫는 冫로 연변시킨 것이다. 예서의 특징인 필획의 平直化가 상당히 이루어졌다.

今隸 ①, ②, ③, ④는 古隸 耑을 계승하였다. 耑의 상부 冫를, ①耑는 방

향을 바꿔 세워 썼고(㉓), ㉔는 완전히 세워 썼으며(㉕), ㉖, ㉗는 약간 비스듬히 세워 썼다(㉘, ㉙). ㉚의 하부 ㉛를 ㉜는 ㉝로 썼는데, 이는 ㉞의 ㉟를 ㊱로 서사한 것이다. ㊲는 ㉟의 ㉟를 ㊳로 平直化시키고 중앙에 豎劃(丨)을 쓴 것이다. ㉖, ㉗, ㉔의 ㉝, ㉞, ㉟ 역시 고예 ㉚의 연변이다. ㉝, ㉞, ㉟는 땅을 본래의 모습대로 ‘一’로 쓰고 뿌리의 모습은 ㉝, ㉞, ㉟로 쓴 것이다.

해서 耑은 금예 ㉖, ㉗ 등의 상부를 완전히 수평으로 썼고[山], 뿌리는 ‘㉝’로 쓴 것이다. 이는 금예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금예 ‘㉝, ㉞, ㉟’의 중앙 豎劃 丨를 두 개의 豎劃 丨로 쓴 것이다.

耑은 段의 構件으로 쓸 때는 ‘㉟’으로 썼다. 이는 段이 좌우결구의 한자이기 때문에 정형미를 위해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자형변화이다. 만약 段을 ‘耑 + ㉟’의 좌우결구로 서사한다면 자형미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부득불 耑을 생략, 변형시켜 ‘㉟’으로 쓴 것이다.

‘㉟’의 금문에서 해서까지의 자형은 ‘㉟(㉟) - ㉟ - ㉟ - ㉟ - ㉟’인데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㉟’은 耑의 갑골에서 해서까지의 연변 ‘耑[갑골문] - 耑[금문] - 耑[소전] - 耑[전국] - 耑[古隸] - 耑, 耑, 耑[今隸] - 耑[해서]’에 보이는, 하부의 뿌리를 나타내는 부분을 생략하고 상부만을 금문 ‘耑’ 소전 ‘耑’에서 ‘耑’에서처럼 줄기를 그린 부분을 세워[白] 쓴 것이다. 耑은 식물의 줄기 모습을 ‘耑[古隸], 耑, 耑[금예]’처럼 닮여 ‘山’로 쓴 것이다.

漢字學的으로 ‘㉟’이 ‘耑’의 변체임은 소명되었다. 단 자형 변화가 큰 만큼 음운학적 고증이 필요하다. 耑[上古음이 元韻 端紐]과 段[上古음이 元韻 定紐]은 疊韻, 旁紐[端, 定紐]의 近音으로 ‘㉟’이 ‘耑’의 이체임이 증명된다. 瑞와 耑은 독음차이가 커, 瑞의 聲符가 耑임을 인지하기 어려우나, 이들은 對轉[歌韻과 元韻], 準旁紐[端, 禪紐]의 근음으로 耑이 瑞의 聲符임이 증명된다. 아울러 耑과 段을 성부로 한 형성자들의 상고음은, 운부는 疊韻[元韻], 對轉[元韻과 歌韻], 聲紐는 雙聲[章紐, 禪紐, 端紐, 定紐 등], 準雙聲[昌, 初紐, 端, 章紐], 旁紐[章, 禪紐], 準旁紐[端, 禪紐], 혹

은 隣紐[端, 初紐]의 近音이다. 이는 耑을 성부로 한 端(단), 段(단), 端(천), 端(전), 顛(전), 瑞(서), 惓(취), 櫛(타) 등이 同音 혹은 近音으로 耑을 성부로 한 형성자임이 증명된다고 하겠다.

『說文』과 최근 출판된 音韻表에는 보이지 않지만 端[여자 이름 단], 端[불꽃 성할 단], 端[잡 단], 端[송곳 단], 端[적다 단], 端[둥근 대그릇 천], 端[통 바퀴 수레 천] 등도 耑이 성부인 형성자로 추정된다.

<參考 文獻>

高明, 『古文字類編』, 北京: 中華書局, 1980.
 郭錫良, 『漢字古音手冊』, 中國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86.
 段玉裁, 『說文解字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1.
 方述鑫 等編, 『秦漢魏晉篆隸字形表』, 成都: 四川辭書出版社, 1985.
 王 力, 『同源字典』, 北京: 商務印書館, 1987.
 于省吾, 『甲骨文字詁林』(全4冊), 北京: 中華書局, 1996.
 許 慎, 『說文解字』, 北京: 中華書局, 1992.

